

종립학교 종교교육의 다원적 접근*

윤 재 근

대진대학교

〈요 약〉

종교문화는 한 시대와 사회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자 변수이다. 우리는 이미 다원화 된 종교 사회에 살고 있으며 특정의 이데올로기나 종교적 신념이 한 사회를 주도하는 시대는 과거의 일이 되었다. 미래에는 개성과 다양성이 보다 더 확산될 것이며 특정 종교의 지배영역 또한 고수될 수 없는 문제이다. 더구나 한국과 같은 종교 다원화 현상이 뚜렷한 사회에서는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 과 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양선택 교과목으로서의 종교 교육에 대한 문제를 교육과정 변천의 역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교교육에 있어서 그것이 교양교육으로서 가치 있는 것인가의 문제와 종교교사의 문제 그리고 교사 양성의 문제를 대순진리회를 대상으로 하여 대진대학교 종교 관련 학과의 커리큘럼을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현재 한국의 종교교육은 특수한 개별 종단의 선교나 포교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차례의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종교과 교과목에 대한 종교교육이 일선 학교에서 합법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도 표명하였다.

종교교육은 종교의 보편적 진리와 각 종교에서 제시하는 이상적 인간을 형성하기 위한 전인적 교육이어야 한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종교교육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개별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특정 종교의 교리 내용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타 종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상생·공존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타종교에 대한 이해와 개방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종교 간의 대화와 공존이 가능할 수 있는 종교 교육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는 철저히 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있어 종교과 교과가 교양교과로 제자리를 찾는데 달려있는 것이다.

핵심 주제어: 종립학교, 종교교육, 교과교육, 교양교육, 대순진리회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대진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I. 논의의 관점

주지하다시피,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 등 한국의 근대화와 더불어 설립된 대부분의 사학들은 종립학교이다. 이 종립학교들은 기왕부터 각급 학교의 설립 주체인 특정종교 또는 교단과 관련한 특정 종교의 교과목을 학교 교육과정에 편입하여 종교교육을 실시해 왔다. 다만 이때의 종교교육은 중등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각급 학교의 재량에 따라 관행적으로 시행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교육과정 속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진 현대적 종교교육이라기보다는 특정종교의 교리를 중심으로 신앙교육적 성격이 강한 비정규 과정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학교 제2차 교육과정(문교부령 제120호, 1963.2.15.)이 시행되던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가 제4차 교육과정(문교부고시 제442호, 1981.12.31.)에서부터 정규 교육과정에 종교 과목이 포함되면서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이는 전인교육과 인간교육을 활성화한다는 새로운 교육이념과 종교과 교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종립학교들 간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면서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헌법상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의 종교교육이 종교과 교과 개설학교의 종교적 신념과 일치하지 않거나 종교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교육되는 종교교육이 종교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자유선택교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나 대부분의 일선학교에서는 이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자유선택과목으로서의 종교과 교과는 교과서가 인정도서로 승인되었으나 편제와 시수규정만 있을 뿐, 종교과 교과에 대한 교육과정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종교과 교과의 교사 자격에 대한 명시도 없었다.

제5차 교육과정(문교부고시 제88-7호, 1988.3.31.)에서는 자유선택 교과라는 명칭이 교양선택 교과로 바뀌고 교과단위도 2단위로 고정되었으며 5개의 교과목에 생활경제가 추가되어 교육학, 논리학, 심리학, 종교, 생활경제 등 6개 교과목으로 증설되었다. 이는 보통교과에서 습득할 수 없는 다양한 교양교과를 경험하게 하여 삶에 필요한 폭넓은 안목을 연마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을 육성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양선택 교과로서의 종교과 교과에 대한 교육과정은 마련되지 않았으며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과 교과가 개설되더라도 종교가 없거나 종교적 신념이 다른 학생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종교과 교과이외의 다른 교양교과목을 추가로 개설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한 종립학교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이 시기에는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종교과 교과서가 각 종단별로 발행된 점과 무자격 종교 담당 교사에 대한 교원자격 연수를 시행한 점은 특이할 만하다.

제6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1992-19호, 1992.10.30.)에서는 교양선택 교과에 환경과학 교과가 추가되어 7개 교과목으로 확대되었고 수업단위도 4단위로 증가하여 종교과 교과도 보다 충실한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다.¹⁾ 또한, 교양선택 교과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이 설정되고 각 교과목에 대한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므로 종교교육도 교육과정 없이 각급 종단의 입장에서 원칙 없이 행해지던 것이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지침에 따라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종교과 교과에 대한 교육과정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과 일반학교에 있어 공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이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이해된다. 종교과 교과의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마지막 장의 특정 종교에 대한 서술내용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종교학적 입장에서 다양한 종교들의 내용을 이론적이고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보다 균형 있는 종교교육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종교교과서의 집필 내용에 있어 개별 종단의 호교론적 서술이나 타종교의 서술내용에 대한 배타성은 종교과 교과에 대한 교육과정과는 차이가 있어 문제로 대두되었다.²⁾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1997.12.30.)에서는 안전과 건강, 진로와 직업 교과가 추가되어 교양 교과목이 9개로 증설되었다. 또한 교과의 명칭이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탈피하여 실생활에서 체득하는 경험교육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생활과 철학, 생활과 논리, 생활과 심리, 생활과 교육, 생활과 종교로 변경되었다.³⁾ 이러한 7차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취지 아래 실제적인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문과 교양에 대하여 중등학교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종교과 교과의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6차 교육과정에서의 영역을 유지한 채, 교양교과의 성격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최근의 2007년도 교육과정 개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에서는 생활과 종교 교과에 대하여 기존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개선하였다. 제7차 생활과 종교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총론의 기본방향과 중점에 바탕을 두고, 종교교육을 온전한 인격형성과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의 양육이라는 교양교육의 일환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종교교육에 관한 최초의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었던 6차 교육과정과 이를 개정하여 종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던 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제공되었던 문제는 일선 종립학교의 신앙적 차원의 종교교육과 종교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을 갖춘 건전한 교양인을 양성한다는 객관적 종교교육간의 문제였다. 그러나 이것은 쉽게 양보되거나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종교과 교과에 있

1) 교육부, 『고등학교 교양선택 교육과정 해설』(서울: 교육부, 1995).

2) 김귀성, 「제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과서 개발」, 『종교연구』 제28집(서울: 한국종교학회, 2002).

3) 교육부, 『고등학교 교양선택 교육과정 해설』(서울: 교육부, 2001).

어서는 종립학교의 현실적인 문제인 신앙적 종교교육과 객관적 교양 수준으로서의 종교학적 종교교육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다만 종교학적 종교교육이 좀 더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종교적 신념에 있어 다양한 학생들이 공존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교과과정의 구성과 내용, 용어와 표현방법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⁴⁾

이와 같은 일련의 종교과 교과에 대한 교육과정의 변화 추이와 더불어 제기될 수 있는 것이 종교 교사에 관한 문제이다. 이미 1990년의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와 교육학과의 연계한 종교교사 연구 과정으로 기존의 종교과 담당 교사가 종교 교사 자격증을 부여받았다. 그 이후 4차례에 걸친 종교 교사 연수 과정이 있었으며 2005년도부터는 서울대 교육행정 연수원에서 종교교사 임시 양성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종교 또는 종교학 관련 학과에서 교직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바, 종교 교사(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유한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어 이에 따른 현명한 방법도 강구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미 다원화 된 종교사회에 살고 있으며 특정의 이데올로기나 종교적 신념이 사회를 주도하는 시대는 과거의 일이 되었다. 종교문화는 한 시대와 사회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자 변수이다. 그러나 미래에는 개성과 다양성이 보다 더 확산될 것이며 특정 종교의 지배영역 또한 고수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과 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은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이다. 이제 공교육에 있어서의 종교교육은 단순한 선교나 포교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수차례의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정당한 종교과 교과목에 대한 종교교육이 일선 학교에서 합법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종교과 교과목은 중등학교 교과교육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종교과 교과의 교육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학적 입장에서의 교과교육의 기본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중등학교의 교양 교육과정에 맞는 교과교육으로서의 종교과 교육에 대한 문제와 종교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 수 있는 교직과정 이수 학생들의 종교관련 학과의 커리큘럼을 대순진리회의 종립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살펴볼 것이다. 종교 다원화 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으로서 이와 같은 주제가 상생과 공존의 어젠다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II. 교과교육의 기본원리

1. 교과교육의 정의와 특성

교과교육에 대하여 교육학 용어 사전은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 있다. “교과교육이란

4)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14: 교양』(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09).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서 생활지도나 특별활동과는 구분되는 부분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교과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교과의 종류는 교육과정령으로 정해두고 있다. 그러므로 교과교육은 교육과정령에 의해서 특별히 지정된 교과를 지정된 시간 수만큼 이수하도록 하는 교육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⁵⁾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교육의 정의를 내려 보면, 교과교육이란 교육받은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등의 정해진 교과를 정해진 시간 수만큼 가르치는 것을 뜻한다.⁶⁾

학교교육은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의 양 축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에서 학습지도는 교과 교육 활동을 일컫는데, 교과(subject)는 학습지도 영역의 기본단위가 된다.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단계에서 설정하게 되는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을 교과라고 한다면, 교과야말로 교육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적용·지도할 지식이나 기능을 논리정연하게 묶어 놓은 일군(一群)이라고 할 수 있다.⁷⁾

교육활동을 가르치는 행위라고 한다면, 교과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가르칠 내용을 일정한 방식에 따라 선정하고, 선정한 내용을 다시 구조화하여 조직해 놓은 것이라고 하겠다. 즉, 교과란 좁게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각 교과서에 담겨 있는 내용을 의미하며, 넓게는 각 교과에 대응되는 학문 영역에서 다루는 내용을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형태로 조직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의 교과는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의미하며,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배울 거리를 일컫는 것이다.⁸⁾

교육은 다양한 개념정의를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조작적·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간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정내용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 속에는 의도적이면서도 계획적인 목표와 내용은 물론 방법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⁹⁾

학교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 태도들을 갖춘 바람직한 인간상을 목표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설정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교과는 역사를 통한 우리의 경험이나 문화요소 가운데서 현재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는 내용들을 특별히 학교에서 가르칠 내용으로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교과교육의 특징으로 연결되어지는 바, 교과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화요소로서의 교과를 들 수 있다. 문화요소로서의 교과란, 교과의 내용은 곧 우리의 문화 내용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문화요소로서의 교과라는 말은 교과의 내용은 우리의 문화에서 오는 것이며, 이들 여러 가지 문화 가운데서 특별히 중요한 어떤 것을 선택해서 가르친다는 뜻이다.

5)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학 용어사전』(서울: 하우, 1994), 80-81쪽.

6) 김정배·김재건·이홍숙, 『교과교육론』(서울: 학지사, 2001), 18쪽.

7) 배장오, 『교과교육론』(경기고양: 서현사, 2005), 11쪽.

8) 위의 책, 12쪽.

9) 위의 책, 18-19쪽.

두 번째, 교과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필요로 한다. 특정 지식의 내용이 교과로 선택되어 학교의 교육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의 교육적 가치를 지지하는 특성의 사회적 세력의 인정이 있어야 한다. 어떠한 문화적 요소든지 간에 그것이 기존 사회체제의 가치관이나 신념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그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교과로서 채택될 수 있다.

세 번째, 선택된 것으로서의 교과를 들 수 있다. 문화요소 가운데서 어떤 것을 교과로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문화 요소 자체에 대한 중요성이나 사회적 지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자의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 어떤 것을 교과로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력이 교과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넷째, 교과의 논리적 준거이다. 교과의 내용으로 선택되는 것은 우리의 문화 가운데서 주로 학문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학문은 각각의 고유한 탐구의 대상과 탐구의 방식을 갖는다. 또한 이들은 탐구의 결과를 진술하는 논리적으로 독특한 진술의 방식이나 개념체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점에서 각각의 학문은 서로 다른 분야와의 구분이 가능하며, 서로 다른 논리적 준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¹⁰⁾

2. 교과 교육 내용의 선정 및 조직 원리

교과란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가르치는 것이므로 학생들이 알 만한 가치가 있는 지식을 주요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알 만한 가치가 있는 지식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교과의 대상으로 편입시킬 수는 없다. 교과내용을 선택해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선정 기준은 마련되어야 한다. 교과 교육 내용의 선정이 중요시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과 교육 내용의 선정과 관련하여 타일러(R. W. Tyler)는 교육내용이 교육목표에 비추어 선정되어야 하지만, 추구하는 목표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공통적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학습경험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며, 둘째, 선정된 학습경험은 학습자로 하여금 만족을 느끼게 하는 경험이어야 하며, 셋째, 학생들의 현재 수준에서 경험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넷째, 하나의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데 여러 가지의 다른 학습경험이 활용될 수 있어야 하며, 다섯째, 같은 학습경험을 했더라도 교육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고,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¹¹⁾

이돈희는 교과 선정과 관련하여 첫째, 교육대상어의 타당성, 둘째, 교육계획에의 타당

10) 박병선 외 4명, 『교과교육원리』(서울: 갑을출판사, 1998), 43-47쪽.

11) R. W. Tyler, 이해명 역, 『교육과정과 학습지도의 기본원리』(서울: 교육과학사, 1994), 60쪽.

성, 셋째, 교육방법에의 타당성 등 교육의 타당성 측면에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¹²⁾ 광병선은 철학적, 심리학적, 공학적, 정치적, 실천적 준거를 중시한다.¹³⁾ 김순자는 교육내용이 가지는 본질적 가치, 교육내용의 유용성·실재성·관련성, 학습자의 필요와 흥미, 체계화된 학문의 내용을 교과 선정의 기준으로 제시한다.¹⁴⁾ 이상을 종합해보면, 교과내용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교육의 목표, 학습자의 흥미와 유용성, 사회적 요구와 철학적 타당성 등 이다. 이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이 유용성이다. 지금까지의 교과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과가 생활에 미칠 유용성의 문제보다는 학문적 기준을 중심으로 내용을 설정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교과내용의 선정 기준이 학문적인 요소에 있다 하더라도 직접적 수혜자인 학습자의 입장에서 학습자가 학습 후 갖게 될 유용성이나 사회와 국가적 차원에서의 유용성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종교과 교과가 가지는 교양 교육으로서의 유용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교과교육의 내용 선정과 관련해서 교과 자체의 내재적 기준과 함께 교육의 수혜자인 학습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용성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아울러 학습자의 변화는 오랜 기간 동안의 교육적 경험이 축적된 후에야 나타나는 교육의 효과이다. 이러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험의 지속적인 축적이 가능한 교과의 조직이 필요하다.

교과의 조직이란 내용을 어떤 순서로 관련지어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¹⁵⁾ 교과의 조직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는 계속성(continuity), 계열성(sequence), 통합성(integration)이다. 교과에 대한 조직은 선정된 요소를 이 세 가지 조직 원리에 입각하여 설계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조직 원리를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속성이란 교과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원리나 개념 또는 기술 등에 완전히 익숙해지도록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반복적으로 계속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것을 반복성이라고도 한다. 학습에서의 계속성이란 가장 기본 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둘째, 계열성이란 계속성과 관련 있지만 계속성 이상의 것이다. 단순히 반복되는 계속성과는 달리 계열성은 학습의 내용이 단계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져서 내용이 심화,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열성에 해당하는 조직에는 브루너의 나선형 교육과정의 대표적이다. 브루너는 지식의 구조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나선형 교육과정을 제안하였다. 각 교과의 구조에 해당하는 것을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반복·심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로 나선형 교육과정이며, 이것은 내용을 심화하여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계열성에 해당하는

12) 이돈희 외, 『교과교육학 탐구』(서울: 교육과학사, 1998), 29쪽.

13) 광병선, 『교육과정』(서울: 배영사, 1987), 324쪽.

14) 김순자, 「교과교육학의 연구영역 및 과제」, 『원우논총』 제5집(서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원우회, 1987), 105-107쪽.

15) R. W. Tyler, 이해명 역, 앞의 책, 76쪽.

것이다.

셋째, 통합성은 한 교과 내에서의 여러 내용들이나 각 교과들을 서로 수평적으로 관련 짓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관련 짓도록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물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고 학습내용과 행동 또는 생활을 통합시키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계속성과 계열성이 수직적 조직임에 반해 통합성은 수평적 조직에 해당하는 것이다.¹⁶⁾

Ⅲ. 중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종교과 교육

1. 6, 7차 교육과정과 종교과 교육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종교교육의 의의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학생들의 심성개발을 위하여 종교교육은 반드시 실시해야 할 교과라고 하는 전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개별 종교가 설립한 종단 학교의 설립정신을 구현하도록 하기 위한 교과라는 전제이다.

제6차 교육과정은 종교교육의 목표를 ① 건전한 종교관, ② 신앙심의 확충, ③ 타종교의 포용과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제6차 교육과정은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섯 가지의 영역별 중점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종교사상에 대한 기본 지식과 삶의 궁극적 의미를 이해하고, 인생에서 봉착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성숙한 인간이 되게 한다.
- ② 동양의 유·불·도교와 서양의 그리스도교 및 이슬람교 등 여러 지역의 종교를 이해하고, 문화적 전통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 ③ 한국에서의 외래 종교 사상의 수용 과정을 이해하고, 건전한 종교 생활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
- ④ 비판적인 자기 성찰과 종교적 체험을 토대로 반종교적 편견이나 비합리적인 맹신을 극복하여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이룩하게 한다.
- ⑤ 경전들의 현대적 의미를 인식하고 배타적인 독단주의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와 대화를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상을 구현하게 한다.
- ⑥ 특정한 종교의 경전과 교리 및 역사를 배우고 익혀서, 각자의 신앙심을 일상생활을 통해서 실천함으로써 바람직한 한국 문화를 창조할 수 있게 한다.¹⁷⁾

16) 김정배 외, 앞의 책, 148-152쪽.

17) 정진홍, 『제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13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한편,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개개 종교를 가르치는 것을 종교교육의 내용으로 하는 접근을 지양하고 종교와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들을 쉽게 접근하면서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은 종교교과의 목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종교에 대한 폭 넓고 균형 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한다.
- ②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인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심을 확충한다.
- ③ 다른 종교를 포용하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태도를 기른다.

한편 제7차 교육과정의 종교교과는 5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① 종교일반을 이해하기 위한 I, II단원
- ② 종교의 다양한 전통과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III, IV단원
- ③ 종교의 입장에서 인간, 자연, 공동체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V, VII단원
- ④ 한국의 종교를 이해하기 위한 VI단원
- ⑤ 학교의 당해 특정 종교를 가르치기 위한 VIII단원¹⁸⁾

6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 간에는 종교교육에 있어 본질적인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세부항목의 편성에 있어 약간의 변화가 있으며 이를 도표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제6차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I. 인간과 종교 생활주변의 종교들 종교적 신념과 이해 궁극적 가치와의 만남 종교적 인격 형성	I. 인간과 종교 궁극적인 물음과 문제 종교와의 만남과 문제해결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종교의 의의와 역할
II. 세계 문화와 종교 유교, 불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힌두교의 전통과 사상 및 그 밖의 종교 사상	II. 종교경험의 이해 여러 가지 인생문제 우주관, 역사관, 생사관 경전과 종교규범 종교의례와 종교적 실천

15-17쪽.

18) 위의 글, 25-32쪽.

Ⅲ. 한국 문화와 종교 전통적인 민간 신앙 유, 불, 도교의 수용 크리스ต교와 이슬람교의 수용 한국의 민족종교	Ⅲ.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 종교 사상과 배경 참된 것과 깨달음 종교의 특성 이해
Ⅳ. 종교경험의 이해 신앙의 여러 관점 종교의식과 종교적 실천 종교적 공동생활	Ⅳ. 세계 종교와 문화 유교와 도교 불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과 기타 종교
Ⅴ. 현대 사회와 종교 성스러운 문헌들의 현대적 의미 종교와 세속문화와의 만남 다른 종교들 간의 대화 종교와 사회의 이상 실현	Ⅴ.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 다양한 인간관 종교적 인간관 종교적 자연관 과학과 종교
Ⅵ. 특정종교의 교리와 역사 종교의 경전 종교의 교리 종교의 역사 일상생활 속의 종교적 생활 종교와 내일의 한국	Ⅵ. 한국 종교와 문화 한국 불교와 문화 한국 유교 및 도교와 문화 한국 크리스트교와 문화 한국 무속신앙과 민족종교
	Ⅶ. 종교 공동체 공동체의 이념과 구조 종교의 사회적 기능 종교 간의 화해와 공존 종교적 인격 형성
	Ⅷ.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 경전, 교리, 역사 종교적 생활 한국 종교와 문화 창조 나의 종교 생활 설계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에 있던 ‘현대 사회와 종교’가 삭제되고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과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종교 공동체’가 첨가되었다. 이러한 단원의 변화는 현실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의 다원화 현상을 유념해야 함과 환경 생태적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주체화 하고 있는 것이다.¹⁹⁾

그러나 이와 같은 교과서의 편제가 보다 균형 있는 교양적 종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단의 검인정 교과서의 집필 분량은 많은 부분을 마지막

19) 정진홍, 앞의 글, 32-33쪽.

장인 ‘특정 종교의 교리와 역사’,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에 할애하고 있다. 이것은 종립학교의 설립주체인 개별종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앙적 종교교육의 성격과 교양교과 교육으로서의 교양적 종교교육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이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주장 아래 제기 되었던 ‘종교학적 종교교육’ 시행의 문제와 종립학교의 건학 이념을 구현한다는 목적적 종교교육의 병행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다양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현장에서는 종교교사의 균형 잡힌 종교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셈이다.

2.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종교과 교육

1997년도부터 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의 ‘생활과 종교’ 교과에 대한 2007년도의 개정에서는 기존의 틀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적인 수정이 이루어졌다. 제7차 ‘생활과 종교’ 교육과정은 사회 구성원의 양육이라는 교양 교육의 일환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 최초로 정규 종교 교육과정이 마련된 이후 처음으로 개정된 것이었다.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은 종교학적인 종교 교육과 신앙적인 종교 교육을 병행하던 기존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전자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은 종교의 의의나 종교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종교학적 설명을 좀 더 보강하였으며, 세계와 한국의 다양한 종교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종교학적 시각에서, 시대와 지역을 넘나드는 교차 문화적 비교를 통해 소개함으로써 종교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이해하고, 종교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구체화하는 기회로 삼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종교 교과가 주로 종단 학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실과는 별도로, 종교 교과가 어디까지나 신앙 일변도의 교육이 아닌 바른 교양을 추구해야 한다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종교’ 교과의 기본 목적은 종교인을 양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대한 균형 잡힌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를 심화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게 하는 데 있다. 물론, 현실적 여건에서 특정 종교를 가진 학생에게 해당 종교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종교 생활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특정 종교의 신앙이나 실천이 개입되더라도 가능한 한 이를 최소화하고 대신에 종교 일반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좀 더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교과 과정을 개정할 필요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를 위하여 이번 개정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점에 중점을 두어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였다.

첫째, 내용 체계의 전반적인 구성이 체계적이지 못하거나 교과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이를 좀 더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직되도록 재편하였다. 특히 단원의

배열을 재조정하여 세계적 차원과 한국적 차원에서 다양한 종교들의 역사와 현재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공동체로서 종교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게 하였다.

둘째, 각 영역별 항목 중 일부 주제는 한두 시간으로 다루기에는 분량이 지나치게 방대하여 대폭 축소하거나 과감하게 삭제하였다. 따라서 교과 내용이 좀 더 실제적인 분량이 되도록 내용을 재편하였다.

셋째, 각 종교별로 특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고려한 용어 선택과 내용 서술이 되어야 했다. 이를 위하여 일부 용어와 내용을 수정하였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많은 종교들이 조화와 갈등 속에서 공존하고 있으며, 오늘날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할 줄 아는 태도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종교 교육을 통하여 서로 다른 종교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에 대해 배우고, 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07년도 개정 교육과정에 있어 종교 교과 성격은 종교에 관한 기본 지식과 일반 이론을 습득하고, 우주의 의미나 삶과 죽음 같은 인생의 궁극적 문제에 대한 종교적 해답의 다양성을 이해함으로써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즉 종교 과목은 인간의 궁극적인 물음과 해답을 추구하는 종교의 세계를 이해함으로써,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전인적 인간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교육의 목표는 종교에 대한 폭넓고 균형 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고,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인생 문제를 성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배양하며,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올바르게 참된 삶의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가. 궁극적인 가치와의 만남을 통한 자기 성찰과 체험을 바탕으로 종교적 가르침과 의례, 종교 공동체를 이해한다.
- 나. 다양한 종교들의 특성을 서로 비교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한다.
- 다. 종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인간관과 자연관을 기른다.
- 라. 한국의 토착 종교와 전래 종교의 전개 및 상호 작용과 이들이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건전한 종교관의 확립을 통해 삶의 목표를 정립한다.
- 마. 종교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가진다.
- 바. 각 종교의 경전, 교리, 역사를 통해 종교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한다.

이러한 점들에 입각한 교육 내용의 체계는 다음의 표와 같다.

영역	내용 요소
1단원 : 인간과 종교	◦ 궁극적인 물음과 문제 ◦ 삶과 믿음 ◦ 종교와의 만남과 문제 해결 ◦ 종교의 의미와 역할
2단원 : 종교 현상의 이해	◦ 여러 가지 인생 문제 ◦ 경전의 의미와 해석 ◦ 우주관, 역사관, 생사관 ◦ 종교 의례와 규범
3단원 :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	◦ 종교적 차이의 맥락 ◦ 종교의 특성 이해 ◦ 종교들의 비교 ◦ 세속 사회와 종교
4단원 :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	◦ 다양한 인간관 ◦ 종교적 자연관 ◦ 종교적 인간관 ◦ 종교와 과학의 관계
5단원 : 세계의 종교와 문화	◦ 유교 ◦ 불교 ◦ 이슬람교 ◦ 도교 ◦ 그리스도교 ◦ 기타 종교
6단원 : 한국의 종교와 문화	◦ 한국 토착 종교의 이해 ◦ 한국 유교와 도교의 이해 ◦ 한국 신종교와 기타 종교의 이해 ◦ 한국 불교의 이해 ◦ 한국 그리스도교의 이해
7단원 : 종교 공동체의 이해	◦ 종교 공동체의 이념과 구조 ◦ 종교 간의 대화와 공존 ◦ 종교의 사회적 기능 ◦ 종교적 인격 형성
8단원 : 특정 종교의 사상과 전통	◦ 경전과 교리 ◦ 한국 종교와 문화 창조 ◦ 종교적 생활 ◦ 나의 종교관 점검

고등학교 교양 교육으로서의 종교 교육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생활과 종교’ 교육과정의 내용은 모두 여덟 개 단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각 단원은 다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부분은 1, 2단원으로 종교학적인 이론에 입각하여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단원들이다.

둘째 부분은 3, 4단원으로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 존재하는 종교들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는 단원들이다.

셋째 부분은 5, 6, 7단원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양한 종교 전통들을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단원들이다.

마지막 부분인 8단원으로 각 종단 학교의 현실을 고려하여 특정 종교에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한다.

이상의 과정들은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에서 개별 종교에 대한 구체적 이해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띠게 된다. 그러나 다른 교과와 달리 종교 교과에서는 각 단원이 순차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모든 다원은 그 자체의 독립성을 가지며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밀접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개별 종교에 대한 이해는 어디까지나 종교에 대한 일반적 이해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양자를 넘나들면서 좀 더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이해의 태도를 가지게 된다.

IV. 대순진리회 종립학교 현황과 종교교육

1. 대순진리회 종립학교 현황

첨단을 걷고 있는 과학 문명의 발달과 그로인한 편리의 제공은 인간의 삶을 보다 풍부하고 윤택하게 하였다. 그러나 반면에 인간의 삶이 편리해질수록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과 영역은 좁아졌고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능력 밖에 있던 문제들까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능하게 하였다. 현대 사회에 있어 물질문명의 고도화, 기계문명의 첨단화는 인간들로 하여금 물질의 힘을 과신하게 하여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급기야는 신도(神道)의 권위까지 떨어뜨려 윤리부재(倫理不在)의 시대를 초래한 것이다. 문명사회가 고도로 발달할수록 인간성의 소멸이라는 극심한 고뇌에 빠지게 되는 것은 결국 정신문화의 상대적 쇠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인의를 근본으로 하는 건전한 정신문화의 창달과 물질문명의 재정립에 있다.

대순진리회는 이러한 인류사회의 공통적인 고뇌의 극복을 성경신(誠敬信)의 원리에 입각한 교육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성경신을 바탕으로 한 교육은 전인적인 인격형성에 이바지할 것이며, 그 인격을 바탕으로 한 인의(仁義)의 구현은 인간이 이루어 놓은 고도의 물질문명을 좀 더 조화롭고 넉넉하게 향유토록 하며 보다 나은 고도의 문명을 창출케 할 것이다. 나아가 최고의 지성과 인격을 갖춘 창의적 인재의 양성은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난관도 능동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²⁰⁾

이와 같은 설립취지 아래 대순진리회는 3대 중요사업²¹⁾ 중 하나인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해원상생의 원리에 입각한 성실 경건 신념의 정신에 따라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984년 2월 6일 학교법인 대진학원을 설립하였다.

1984년 12월 17일 서울시 노원구에 대진고등학교 설립 인·허가와, 1988년 11월 12일 대진여자고등학교 설립 인·허가를 서울시 교육위원회로부터 받아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나가기 시작하였다. 인의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대진대학의 설립을 추진하여 1991년 11월 15일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에 대진대학을 설립하였다. 그 후 1992년 3월 13일 학교법인 대진학원을 학교법인 대진대학교로, 대진대학을 대진대학교로 변경인가를 받았다. 또한 1994년 2월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분당 대진고등학교, 1994년 10월 21

20) 대진대학교 대외협력처 홍보팀, 『대진대학교 요람 2010』(경기포천: 대진대학교, 2010), 19쪽.

21) 종교는 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인간 정신의 구제와 함께 사회와 민생을 구제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이에 종단 대순진리회에서는 구호자선사업, 사회복지사업, 교육사업을 3대 중요사업으로 정하여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대진디자인고등학교를 설립하였고, 1995년 1월 16일 고양시 대화동에 일산 대진고등학교, 1995년 10월 30일 부산 금정구에 대진정보통신고등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2009년 3월에는 충청북도 괴산군에 중원대학교를 개교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대순진리회는 연차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공헌할 수 있는 최고의 지성과 인격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2개의 4년제 대학교와 6개의 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종교교육 실태

1) 대내 교육

대순진리회에서는 종교적 인격의 심화를 위하여 이를 신앙하는 도인(道人)의 종교적 수행을 제정하여 개인적 수행체계로서의 수도공부(修道工夫)를 끊임없이 시행하고 있다. 대순진리회에 있어 수도(修道)란 “마음과 몸을 침착(沈着)하고 잠심(潛心)하여 상제(上帝)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정신을 단전에 연마(鍊磨)하여 영통(靈通)의 통일을 목적으로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일념(一念)을 스스로 생각(生覺)하여 끊임없이 잊지 않고 지성(至誠)으로 봉축(奉祝)하는 것”²²⁾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늘 몸과 마음을 고요히 하며 정심(正心)에 이르도록 하여 상제를 모시고 영통의 통일을 위해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여 일념으로 받드는 것이 수도인 것이다.

수도는 심신(心身)의 균형, 신인(神人)의 조화를 견지하는 것으로 인간과 외계 사물의 동체주의적 내용을 구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마음은 천지보다도 크다’²³⁾고 하는 창조적 자기표현은 삶의 현장에서 긍정적 사고를 유지하게 하여 주체적 자발성과 사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도의 구체적인 방법은 기도(祈禱), 수련(修鍊), 공부(工夫)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종단 내부적 종교교육의 일환으로 실행되고 있는 공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대순진리회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부는 여주본부도장의 시학(侍學)·시법공부(侍法工夫)와 수강(授講), 중곡도장에서 시행되는 기도공부(祈禱工夫), 포천수도장에서 시행되는 수강, 그리고 제주수련도장과 금강산수련도장에서 시행되는 연수(研修)가 있다.²⁴⁾ 아울러 대학생 하계 성지순례·동계 수련회, 대순학생회 여름·겨울캠프 등이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2)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16-19쪽.

23) “心也者鬼神之樞機也門戶也道路也 開閉樞機出入門戶往來道路神 或有善或有惡 善者師之惡者改之 吾心之樞機門戶道路大於天地”(대순진리회교무부, 『전경』, 『행록』 3장 44절,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9)

24) 현재는 개별 도장 별로 그 내용이 상이하나 1999년을 기점으로 기술한 것이며 이하 내용도 동일하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종교사회에 있어서 대순진리회와 종교교육」(줄고, 『종교교육학연구』 제8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9, 185-192쪽)을 참고할 것.

시학·시법공부는 대순진리회의 목적²⁵⁾을 달성하기 위한 수행의 일부이다. 이것은 1957년 조정산(鼎山, 趙哲濟; 1895-1958)에 의해 제정되어,²⁶⁾ 1991년 여주본부도장의 현 본전이 완공된 후 박우당(牛堂, 朴漢慶; 1917-1995)에 의해 시행되어 지금까지 실행되고 있다.

기도공부는 대순진리회 최초의 도장인 중곡도장이 건립되고 1971년 영대를 봉안한 후 1974년 4월 5일(음)에 18명으로 처음 시법공부로 진행되었다. 1975년 2월 7일(음)에 24명으로 개편되었고 그 해 11월 20일(음)부터는 36명으로 실행되었다. 여주본부도장의 시학·시법공부가 시작된 91년 전까지 시법공부로 봉행되다가 그 이후 기도공부로 개명되어 진행되고 있다.

수강은 대순진리회의 교직자를 양성하고 그 자질을 높이기 위해 여주본부도장과 포천수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교육의 내용은 교무(敎務) 이상의 교직자를 대상으로 『전경(典經)』을 중심으로 한 강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수는 제주수련도장과 금강산수련도장에서 5박 6일의 일정으로 시행된다. 연수는 수도인들의 현장 견학을 통해 그 곳에 담긴 진리를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도인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현재 각 도장에서는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캠프가 여름과 겨울에 두 차례 실행되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하계 성지순례와 동계 수련회가 개최되고 있다.

2) 대외 교육

대순진리회의 종립학교인 대진대학교에서는 1995년 대순종학과(大巡宗學科)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학과는 대순진리회 교리를 교육이념에 적용하여 국가와 인류 평화에 기여할 교역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교내 정책의 변화에 따라 2005학년도에는 종교문화학부로 확대 개편하여 대순종학 전공과 종교문화학 전공으로 운영하였다. 이를 2010학년도에 이르러 학문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취지 아래 각각 대순종학과와 종교문화학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양 학과 모두는 현재까지 교육 정책의 변화에 따라 몇 차례의 교과과정이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을 표를 통해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5) 대순진리회의 목적은 무자기(無自欺)－정신개벽(精神開闢), 지상신선실현(地上神仙實現)－인간개조(人間改造), 지상천국건설(地上天國建設)－세계개벽(世界開闢)으로 구성되어 있다.

26) 도주께서 이해 十一월에 도인들의 수도공부의 설석을 명령하고 공부는 시학(侍學) 시법(侍法)으로 구분케 하고 각 공부반은 三十六명으로 하며 시학은五日마다 초강식(初降式)을 올리고 十五일마다 합강식(合降式)을 올리며 四十五일이 되면 봉강식(奉降式)을 행하게 하고, 시법은 시학공부를 마친 사람으로서 하되 강식을 거행하지 않고 각 공부 인원은 시학원(侍學員) 정급(正級) 진급(進級)의 각 임원과 평신도로서 구성하고, 시학원은 담당한 공부반을 지도 감독하고 정급은 시간을 알리는 종을 올리고 진급은 내빈의 안내와 수도처의 질서 유지를 감시하여 수도의 안정을 기하게 하고, 시학관(侍學官)을 두어 당일 각급 수도의 전반을 감독하도록 하셨도다(『전경』, 『교운』 2장 62절).

〈표 1〉 대순종학과 교육과정(1995~1997)

학년	이수 구분	교과목명	1학기			2학기		
			학점	강의	실습	학점	강의	실습
1	전필	대순종학개론	3	3	0			
	전필	동양종교의 이해				3	3	0
2	전필	대순사상I	3	3	0			
		전경서설	3	3	0			
	전선	대순신관	3	3	0			
		유교철학	3	3	0			
		불교철학	3	3	0			
		종교사	3	3	0			
	전필	대순사상II				3	3	0
		대순종단사				3	3	0
	전선	대순상제관				3	3	0
		전경강독I				3	3	0
		도교철학				3	3	0
		교부철학				3	3	0
		한국신종교사				3	3	0
3	전필	천지공사론	3	3	0			
		동양종교윤리	3	3	0			
	전선	전경강독II	3	3	0			
		음양합덕론	3	3	0			
		신인조화론	3	3	0			
		종도론	3	3	0			
	전필	대순종지론				3	3	0
		대순윤리학				3	3	0
	전선	해원상생론				3	3	0
		도통진경론				3	3	0
		대순수도론I				3	3	0
		개벽론				3	3	0
		대순종학교육론				3	3	0
4	전선	대순수도론II	3	3	0			
		포덕교화방법론	3	3	0			
		대순전경특강	3	3	0			
		비교종교학	3	3	0			
4	전선	종무행정론				3	3	0
		대순의례실수				3	3	0
		대순철학특강				3	3	0
		민간신앙특강				3	3	0
		역사상				3	3	0

〈표 2〉 대순종학과 교육과정(1998~2004)

학년	이수 구분	교과목명	1학기			2학기		
			학점	강의	실습	학점	강의	실습
1	전필	대순종학개론	3	3	0			
	전선	종교학	3	3	0			
	전선	동양종교의 이해 한국종교사상				3 3	3 3	0 0
2	전필	전경서설	3	3	0			
	전선	대순신관	3	3	0			
		종교사	3	3	0			
		불교사상사	3	3	0			
		대순종단사	3	3	0			
		수도입문	3	3	0			
	전필	종지론				3	3	0
	전선	대순상제관				3	3	0
		도교사상사				3	3	0
		한국신종교론				3	3	0
		전경강독				3	3	0
		수도실수				3	3	0
3	전필	동양종교윤리	3	3	0			
	전선	유교사상사	3	3	0			
		개벽론	3	3	0			
		천지공사론	3	3	0			
	전선	대순종학교육론				3	3	0
		종교심리학				3	3	0
		대순인간관				3	3	0
		종교수행론				3	3	0
		포덕교화방법론				3	3	0
4	전필	대순의례실수	3	3	0			
	전선	경전해제	3	3	0			
		종무행정론	3	3	0			
	전선	역학특강				3	3	0
		한국종교특강 비교종교학				3 3	3 3	0 0

〈표 3〉 종교문화학부 교육과정(2005~2009)

학년	이수 구분	교과목명	1학기			2학기		
			학점	강의	실습	학점	강의	실습
1	전필	대순종학개론	3	3	0			
	전선	종교학	3	3	0			
	전선	동양종교의 이해 한국종교사상				3 3	3 3	0 0
2	전필	전경서설	3	3	0			
	전선	종교사	3	3	0			
		불교사상사	3	3	0			
		수도입문	3	3	0			
		대순신앙론	3	3	0			
	전필	종지론				3	3	0
	전선	도교사상사				3	3	0
한국신종교론					3	3	0	
전경강독					3	3	0	
수도실수					3	3	0	
3	전필	동양종교윤리	3	3	0			
	전선	대순의례실수	3	3	0			
		유교사상사	3	3	0			
		개벽론	3	3	0			
		천지공사론	3	3	0			
	전선	대순종학교육론				3	3	0
		종교심리학				3	3	0
대순인간관					3	3	0	
종교수행론					3	3	0	
대순사상과 신의세계					3	3	0	
4	전필	대순종단사	3	3	0			
	전선	경전해제	3	3	0			
		종무행정론	3	3	0			
		포덕교화론	3	3	0			
	전선	역학특강				3	3	0
		한국종교특강				3	3	0
비교종교학					3	3	0	

〈표 4-1〉 종교문화학과 교육과정(2010)

학년	이수 구분	교과목명	1학기			2학기		
			학점	강의	실습	학점	강의	실습
1	전필	종교학	3	3	0			
	전선	근대한국종교의 전개	3	3	0			
	전선	동양종교의 이해				3	3	0
		한국종교사상				3	3	0
2	전필	종교문화론	3	3	0			
	전선	불교사상사	3	3	0			
		한국종교와 문화유산	3	3	0			
		샤머니즘의 이해	3	3	0			
		한국신종교론	3	3	0			
	전필	종교사				3	3	0
	전선	도교사상사				3	3	0
		신화와 종교문화				3	3	0
		종교수행론				3	3	0
		종교현상학				3	3	0
3	전필	종교와 윤리	3	3	0			
	전선	종교사회학	3	3	0			
		유교사상사	3	3	0			
		종교철학특강	3	3	0			
		종교와 미디어	3	3	0			
	전선	종교교육론				3	3	0
		종교심리학				3	3	0
		한국종교특강				3	3	0
		기독교와 이슬람				3	3	0
		종교와 의례				3	3	0
4	전필	동양종교문화특강	3	3	0			
	전선	종교와 예술	3	3	0			
		종교와 신비주의	3	3	0			
		종교원전강독	3	3	0			
		종교문화답사	3	1	4			
	전선	현대종교와 행정				3	3	0
		민간신앙론				3	3	0
		비교종교학				3	3	0
		종교문화론				3	3	0
		글쓰기와 졸업논문지도				3	3	0

〈표 4-2〉 대순종학과 교육과정(2010)

학년	이수 구분	교과목명	1학기			2학기		
			학점	강의	실습	학점	강의	실습
1	전필	대순종학원론	3	3	0			
		한자·한문입문	3	3	0			
		한국예의문화원론	3	3	0			
	전선	대순사회봉사 I	1	0	2			
	전필	대순신앙론				3	3	0
2	전선	초급한문				3	3	0
		생활예절론				3	2	1
		대순사회봉사 II				1	0	2
	전필	전경교의론	3	3	0			
		구천상제론	3	3	0			
		중급한문	3	3	0			
		공통예절론	3	2	1			
		실용영문법	2	2	0			
		대순사회봉사 III	1	0	2			
	전선	대순종지론				3	3	0
		대순종단사				3	3	0
		세계사상사 I				3	3	0
		고문진보강독				3	3	0
		전통의례론				3	2	1
3	전선	영작문연습				2	2	0
		대순사회봉사 IV				1	0	2
	전필	대순수도론	3	3	0			
		세계사상사 II	3	3	0			
		대순신조론	3	3	0			
		역사산문강독	3	3	0			
		가정의례총론	3	2	1			
	전선	영문독해연습	2	2	0			
		대순사회봉사 V	1	0	2			
		한국사상사				3	3	0
		전경한문강론				3	3	0
		대순목적론				3	3	0
4	전선	철리산문강독				3	3	0
		가정의례연습				3	2	1
		실용영어회화				2	2	0
		대순사회봉사 VI				1	0	2
	전필	포덕교화론	3	3	0			
		삼교고전강독	3	3	0			
		국제예절론	3	2	1			
		대순실용영어 I	2	2	0			
		대순사회봉사 VII	1	0	2			
	전선	대순종학특강				3	3	0
		역대한시선독				3	3	0
		대순실용영어 II				2	2	0
		대순사회봉사 VIII				1	0	2

〈표 5〉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교과목 비율

교육과정 관련 교과목	표 1		표 2		표 3		교육과정 관련 교과목	표 4	
	과목수	비율(%)	과목수	비율(%)	과목수	비율(%)		과목수	비율(%)
대순종학	26	70	15	48	15	48	대순종학	22	28
							종교학	18	23
타종교 및 종교학	11	30	16	52	16	52	종교일반	19	24
							교양	19	24

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대진대학교 종교 관련 학과의 교과과정은 종교에 대한 학문적 지식의 습득과 더불어 나름대로의 균형 있는 종교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종교인의 교양 습득과 전문적 지식의 내용을 심화시키는데 교육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자아실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의도적 활동이며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당면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며 가치 있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교육에 있어서의 종교교육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진대학교의 종교교육이 종교 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반하여 학교법인의 산하 고등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종교교육 시행의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사업이 종단의 3대 기본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된다는 취지 아래, 종교교육의 선교적 성격을 배제한다는 종단의 기본 입장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종교교육은 온전한 인격 형성과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의 양육이라는 교양 교육의 일환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데 중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단 산하 고등학교에서 교양선택 교과목으로서의 종교과 교과목의 개설을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

3. 종교과 교사 양성 프로그램-교직과정

정부는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원 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일련의 교원자격 기준을 공포한 바 있다. 이에 적어도 중등학교 종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전공이수 학점을 50학점(기본이수학점 21학점 이상 포함)과 교직과목 22학점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교직 이수 시에 변경된 취득 기준에 따라야 한다.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교직과목의 이수 기준과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직과목의 이수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6〉 2008 이전 입학자 교직과목의 이수 기준

이수학년	교과목명	학점
2-1	· 교육학개론 · 교육심리 · 학교문화의 이해(2008년도 신설, 2010년도 폐설)	교과 목당 2학점
2-2	· 교육사회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 교사(2008년도 신설) · 원격교육활용론(2008년도 신설, 2010년도 폐설)	
3-1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3-2	·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 수업이론과 교육(2008년도 신설)	
4-1	· 교육실습(4주)	
4-2	· 교과교육론 · 교육연구(2008년도 신설)	
계	* 10개 과목 이수(교육실습 2학점, 교과교육영역 4학점 이수)	20학점 이수

〈표 7〉 2009 이후 입학자 교직과목의 이수 기준

구분	최저이수기준
	정교사(2급) 및 영양·사서교사(2급)
교직이론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정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교육연구, 교육과교사, 수업이론과 교육)
교직소양	4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영재교육영역포함) - 교직실무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 - 교육봉사활동
합계	총 22학점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교직과목이수 영역 및 학점은 교직과목 20학점, 교직이론 영역 14학점 이상 이수, 교과교육 영역 4학점 이상 이수 그리고 교육실습 영역 2학점 이상 이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2009학년도 이후부터는 교직과목이 22학점으로 상향 조정되고 교육실습이 2학점 이상 추가되어 교사의 현장 경험을 중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2008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부전공을 통한 교사자격 취득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직 이수 시에 전공과목 이수 학점이 일부 변경되었다. 기존에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을 이수함에서 8학점이 추가된 50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교과교육학 영역이 8학점 이상 전공에 편성되도록 하여 전공 교과목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다음의 표에서 대순종학과와 종교문화학과의 년도별 기본이수 과목과 주요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대순종학과 · 종교문화학과 년도별 기본이수 과목

학과	년도	기본이수과목
대순종학과	1999~2007	종교학, 대순종학교육론, 종교심리학, 한국종교특강, 비교종교학 (5과목)
	2008~2009	종교학, 종교교육론, ²⁷⁾ 종교심리학, 한국종교특강, 비교종교학 (추가) 현대종교, 종교철학, 종교사, 종교현상학, 종교사회학 (10과목)
	2010	종교문화학과와 동일
종교문화학과	2005~2007	종교학, 종교심리학, 한국종교특강, 비교종교학, 종교사회학 (5과목)
	2008~2010	종교학, 종교심리학, 한국종교특강, 비교종교학, 종교사회학 (추가) 종교사, 종교현상학, 종교교육론 (8과목)

2008년도부터 전공 교육과정에 대순종학과는 현대종교, 종교철학, 종교사, 종교현상학, 종교사회학 등이 추가되었으며, 종교문화학과는 종교사, 종교현상학, 종교교육론이 추가되어 강화된 교원자격 기준 요건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다.

다음은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한 종교과 교과목의 교직 이수자 현황이다.

〈표 9〉 교직신청자의 교직이수 현황

년도 통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기준	12	12	9	9	9	9	9	9	9	9	9	3	3	111
지원	4	6	6	3	7	3	12	1	3	9	8	3	6	71
취득	0	0	2	2	3	3	5	1	4	-	-	-	-	20

27) 대순종학교육론과 동일과목.

1997년부터 시작된 교직이수는 총 71명이 신청하여 현재 20명이 취득하였으며 5명이 취득예정이다. 대진대학교의 종교 관련 학과에서는 종교에 대한 전반적인 학문적 지식과 더불어 특정 교리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있는 종교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따라서 특정 교리에 편중되지 않은 종교교육을 통해 자종교뿐만 아니라 타종교에 대한 관용의 태도를 함께 배양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종교 전반에 대한 지식의 습득과 균형 있는 종교교육을 지향하는 교과과정 속에서 양성된 교직이수자들은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종교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들 종교과 교과 교직 이수자들의 진로에 대하여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대순진리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립대학교의 종교 관련 교직이수자들의 공통된 문제이다. 이에 대한 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

4. 바람직한 교사상—교직의 성격과 전문성

교직은 일반적인 직업과는 다른 교직 나름의 특성을 지닌다. 교직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직은 인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이며, 둘째, 교직은 주로 인간의 정신 생활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며, 셋째, 교직은 미성숙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며, 넷째, 교직은 봉사직이며, 다섯째, 교직은 국가와 민족에 대하여 지대한 영향을 주는 공적 사업이며, 여섯째, 교직은 사회 진보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한다.²⁸⁾

교직이 가지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다른 직업과는 또 다른 전문성이 요구된다. 즉 교직은 전문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전문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문직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²⁹⁾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다시 “교직은 전문직인가? 비전문직인가?”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를 다룬 논문이나 저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교직은 전문직이라는데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 전문직의 판정 기준으로 첫째, 장기적이고 고도화된 교육과 지속적 능력, 둘째, 엄격한 자격증 제도와 어려운 직업 입문, 셋째,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행사, 넷째, 폭넓은 자율성 행사, 다섯째, 자율 통제와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 결성, 여섯째, 상대적 우위의 사회적 위세와 경제적 보상 등을 들어 교직이 전문직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³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직을 전문직으로 인정해야만 하는 이유는 고도 산업화 혹은 정보화 등으로 표현되는 사회에 적응하고 나아가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인간 육성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집단이 바로 교사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대와 같이 다원화·다양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28) 김기태·조평호, 『미래지향적 교사론』(서울: 교육과학사, 2003), 51쪽.

29) 이희승, 『국어사전』(서울: 민중서관, 1998).

30) 김기태·조평호, 앞의 책, 59쪽.

교육에 대한 욕구와 이에 대한 충족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교사의 법적 용어는 ‘교원’이며 그 일을 업으로 하는 직업을 ‘교직’이라 한다. 이에 교사는 특정직업인으로서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정규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학교에서 학생들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자들을 일컫는다.³¹⁾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람직한 인격의 형성과 이상적인 사회 내지 국토의 건설이라 하겠다. 이를 위한 교육의 향도적인 역할을 하는 담당하는 자를 교사라고 할 때, 교사에게는 그 역할에 따른 특수한 자질이 요구된다.

교사가 교육 작용에 있어서 차지하는 위치는 교육 작용에 있어서의 교사의 역할을 본질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된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교사는 학생 및 교육의 내용과 더불어 교육 작용의 3대 요소일 뿐만 아니라 교육 작용의 방향을 향도한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 교육학의 상식이다.³²⁾ 이와 함께 교사의 중요성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교사로서의 이상적인 자질들이 갖추어져 있을 때 교사의 직무는 바람직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본래적인 직무와 관련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 바, 그 중 박선영의 해석이 주목된다.³³⁾ 그는 교사의 본래적인 직무를 학생에 대한 지도와 자기의 연수라는 두 가지로 요약한다. 여기서 자기연수를 교사의 본래적인 직무라고 한 이유는 “유능한 자기형성자, 즉 스스로 자기의 삶을 진지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타인을 교육시킬 수 없다는 신념에 근거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³⁴⁾

그렇다면 바람직한 종교 교사란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종교란 절대 신념체계 또는 궁극적 가치체계라고 한다. 결국 종교과 교사는 피교육자의 신념 내지 가치체계의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아직 종교적 신념이 미분화 상태인 학생들에게 교사의 의도된 종교교육은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양 교과로서의 종교 교과 교수에 있어 교사의 균형 잡힌 종교관 또는 객관적 시각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중등교육에 있어 교사의 역할은 교사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교육자의 인생관에 있어 일대 전환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신념이나 가치체계와 관계있는 것이라면 더욱더 그러할 것이다. 최근 대학에서의 교직이수 과정이 심화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이것이 바로 교직의 모험성이며 교사에게 윤리적 책임을 부과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종교과 교사의 배타적 독점성

31) 김기태·조평호, 앞의 책, 42쪽.

32) 박선영, 『불교와 교육』(서울: 학지사, 2006), 302쪽.

33) 위의 책, 302-303쪽.

34) 이러한 신념은 슈프랑거(Eduard Spranger)의 “애당초 자기가 유능하고 열성적인 자기형성자가 아닌 사람은 남을 형성시키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라는 말과 불교의 “이미 자기 자신에의 가르침에 뜻을 얻으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치라”라는 좌우명들에 근거한다고 밝히고 있다(위의 책, 303쪽).

을 가능한 배제하는 차원에서 종교과 교사 양성 과정의 교육과정을 최대한 재편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피교육자의 생활전반에 대한 상담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존 중등 교육기관의 상담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를 종교과 교사의 업무로 겸하게 한다면 일선 학교의 행정과 재정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종교과 교사의 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커리큘럼의 조정을 통해 이수 가능하게 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현상이 가시화 된다면 종립학교 뿐만 아니라 일선 공교육 기관에 있어서도 교양선택으로서의 종교과 교과 선택이 확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V. 다종교 사회와 바람직한 종교교육

종교는 궁극적 가치체계이며 절대 신념체계로 그 시대의 규범적 가치를 창조하고 주도하는 문화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절대적 신념체계로서의 종교는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족들의 문화를 반영하고 당위적 가치를 창조하여 왔다.³⁵⁾ 그러나 각자 생활 경험의 전승을 토대로 이룩된 다양한 문화가 발휘되었을 때 종교는 평화를 지향하는 힘이 아닌 갈등의 원천이 되기도 하였다.³⁶⁾ 조나단 삭스(Jonathan Sacks)는 이러한 난제에 대한 답변으로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가 어떠한 방법으로 ‘타자’를 위해 공간을 내 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한 바 있다.³⁷⁾

현재 한국의 사회 문화 현실을 특정 짓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은 종교 다원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유교·불교·기독교와 같은 이른바 세계종교들과 19세기 이후 동학을 위시하여 발흥한 다대한 신종교까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세계종교들이 공존하면서도 어느 하나 우리 사회의 문화 가치체계를 완전히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는 못하다. 이는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현상으로 평가된다.

다종교 사회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주로 다양한 종교인들이 서로 접촉하는 경우에 생겨난다. 이 접촉은 개인 간의 일상생활에서, 사회 집단으로서의 종단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한 대립에서, 그리고 지성에 바탕을 둔 학제 간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 때 개별 종교 전통 상호간에는 그들만의 신념체계의 맥락에 입각하여 합리적이면서도 타당한 주장을 전개한다. 이들의 주장은 일면 보편적 윤리 및 철학체계에 의해서 현대 문명의 질환을 치유하며 다가올 미래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렇지만 이는 관점을 달리한다면 하나의

35) 신광철, 『다문화사회와 종교』, 『종교연구』 제59집(서울: 한국종교학회, 2010), 2쪽.

36) 세계의 모든 족속들은 자기 자기들의 생활 경험의 전승(傳承)에 따라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색 다른 문화를 이룩하였으되 그것을 발휘하게 되자 마침내 큰 시비가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상제께서 이제 민족들의 제각기 문화의 정수를 걷어 후천에 이룩할 문명의 기초를 정하셨도다(『전경』, 『교법』 3장 23절).

37) Jonathan Sacks, 임재석 역, 『차이의 존중-문명의 충돌을 넘어서』(서울: 말글빛냄, 2007), 6쪽.

신념체계에서는 다른 쪽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역설이 된다.

요아힘 바하(Joachim Wach)에 의하면 종교는 사상·실천·사회관계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된다고 한다.³⁸⁾ 종교는 사상 내지 강력한 신념체계에 의하여 실천의 방향과 내용이 주어지며, 인간관계의 양식을 결정해 준다. 신념과 실천과 인간관계를 포함한 전인적 현신을 요구하는 것이 종교의 특성이다. 그러므로 종교는 자기 신념체계의 외적 요인과 대응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 상대방의 가치관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특성을 갖고 있다.³⁹⁾ 따라서 다종교 상황이라는 독특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사회는 이에 따른 절대 신념체계의 상대화 현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종교의 배타적 성격은 종교가 갖고 있는 자기 신념체계의 절대화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만약 여러 종교들이 서로 자기 종교의 교세만을 확장하려 한다면 종교들 상호간의 마찰이 불가피하게 되며, 종교의 포교의지와 현대규범과의 사이에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점이 다종교 상황이 안고 있는 잠재적 위험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이른바 “땅밟기” 사건으로 촉발된 종교적 갈등의 문제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많은 종교 관계자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따라서 국교가 인정되지 않는 다종교 상황 속에서 종교인들은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가 여러 종교들 사이의 하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종교 간의 상호 화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종교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선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만약 이 사실을 거부한다면 이는 한국 사회에 여러 종교가 공존한다는 한국적 현실을 거부하는 것이다.

종교계에서는 타종교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무수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어느 종교가 타종교에 비해 우월하다는 객관적 연구는 없으며 종교의 본질상 그런 연구는 향후에도 없을 것이다. 타종교에 대한 비판적 연구는 사실상 종교 신념의 주관적 주장의 범주를 넘지 못하는 호교론적 논리일 뿐이다.

관점을 달리하여 생각해 본다면 종교의 다원적 상황은 우리 사회가 폐쇄되지 않고 오히려 개방되어 있으며, 인류역사의 모든 문화적 유산과 지혜가 녹아 있는 종교를 수합함으로써 민족문화 창달에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 해석도 가능하다. 이는 그 사회가 여러 종교에 대한 관용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곧 한국인은 여러 종교에 동시적으로 친화력을 갖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⁴⁰⁾

다종교 상황이라는 사회적 특성을 의식하여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하나의 종교로서 사회질서 유지에 동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종교들은 하나의 사회 이익 집단적 성격만을 부각하여 포교의 자유를 주장한다. 종교들이 자신들만의 포교의 자유를 주장할 때 현

38) Joachim Wach, *The Comparative Study of Religion*, (N.Y.:Columbia Univ. Press, 1958), p.59.

39) 윤이훈, 『한국적 상황과 종교 - 한국적 다종교 상황』, 『한국종교연구』 권1(서울: 집문당, 1991), 210쪽.

40) 위의 책, 211쪽.

대사회 질서의 중요한 다른 부분이 희생되는 예가 있다. 이 점은 각 종교교단이 설립한 이른바 중립학교의 종교교육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중등학교 평준화 이후 한국의 모든 중등교육기관은 사실상 지역학교가 되었다. 이에 학생 개인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중립학교에 입학하여 특정 종교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이 보장된 사례는 찾기 힘들다. 즉 종교교육이 교과교육으로서의 교과목이 아니라 특정종교의 신앙교육 또는 선교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셈이다.

그동안 종교교육은 종교를 인류의 양식이나 문화로 접근하기 보다는 흔히 설립재단의 특정 종교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교육 방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선택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종교를 강요하는 형태가 되었고, 삶의 정체성 확립이나 건전한 교양과 종교문화의 이해 등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신앙의 자유를 구속하는 방향으로 이해되기 쉬웠다. 그 결과 종교교육의 기여도가 모호해질 뿐 아니라 그것을 폄하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왔다.⁴¹⁾ 다시 말하면 종교교육은 특정종교 교리의 내용을 교화시키는 폐단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종교 다원화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 제도권 교육기관에서의 종교교육은 중립적이며 객관적이어야 한다.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면서 종교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실정에서 종교교육은 자칫 순기능이 아닌 종교 간의 융화에 매우 역행하는 역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종교 국가에서는 타종교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며 종교 간의 대화와 상호 이해가 가능할 수 있는 종교교육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자신의 믿음과 함께 타인의 믿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올바른 종교인을 양성하는 것이 종교교육의 의무일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에 대한 객관적 이해의 교육이 이 시점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아울러 공교육에서의 종교교육은 설립 재단의 외적 팽창을 위한 대외적 선교정책을 추구할 것이 아닌 대사회적 활동의 일환으로 현대사회 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이에 개별 종교전통에서의 종교교육은 종교의 보편적 진리와 각 종교에서 제시하는 이상적 인간을 형성하기 위한 전인적 교육이어야 한다.

따라서 전인적 인격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특정의 종교적 교화를 가능한 배제하는 종교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교과교육으로서의 종교과 교육이 전인적 인격을 양성한다는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바람직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별 중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인간성 자체를 풍부하게 하는 전인·완인의 교육으로서 종교교육의 필요성과 가치를 부각하고, 또한 특정 종교의 교리 내용이 중심이 아닌 타 종교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상생·공존의 종교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철저히 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있어 교과교육으로서의 종교과 교과가 교양교과로 제자리를 찾는데 달려있는 것이다.

41) 양은용, 『종교교사의 자질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27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8), 2쪽.

참고문헌

-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9.
-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 고병철. 「종립사학과 종교교과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 『정신문화연구』 제32권 제4호. 경
기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 곽병선 외 4명. 『교과교육원리』. 서울: 갑을출판사. 1998.
- 곽병선. 『교육과정』. 서울: 배영사. 1987.
-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14: 교양』.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09.
- 교육부. 『고등학교 교양선택 교육과정 해설』. 서울: 교육부. 1995.
- 교육부. 『고등학교 교양선택 교육과정 해설』. 서울: 교육부. 2001.
- 김경배 · 김재건 · 이홍숙. 『교과교육론』. 서울: 학지사. 2001.
- 김귀성. 「제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과서 개발」. 『종교연구』 제28집. 서울: 한국종교학회. 2002.
- 김기태 · 조평호. 『미래지향적 교사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3.
- 김순자. 「교과교육학의 연구영역 및 과제」. 『원우논총』 제5집.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원우회. 1987.
- 대진대학교 대외협력처 홍보팀. 『대진대학교 요람 2010』. 경기포천: 대진대학교. 2010.
- 박선영. 『불교와 교육』. 서울: 학지사. 2006.
- 배장오. 『교과교육론』. 경기고양: 서현사. 2005.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하우. 1994.
- 신광철. 「다문화사회와 종교」. 『종교연구』 제59집. 서울: 한국종교학회. 2010.
- 양은용. 「종교교사의 자질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27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8.
- 윤이흠. 「한국적 상황과 종교—한국적 다종교 상황」. 『한국종교연구』 권1. 서울: 집문당. 1991.
- 윤재근. 「다종교사회에 있어서 대순진리회와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8권. 서울: 한
국종교교육학회. 1999.
- 이돈희 외. 『교과교육학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1998.
- 이희승. 『국어사전』. 서울: 민중서관. 1998.
- 정진홍. 「제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13권. 서울: 한국종교교
육학회. 2001.
- Wach, Joachim. *The Comparative Study of Religion*. N.Y.: Columbia Univ. Press. 1958.
- Sacks, Jonathan. 임재석 역. 『차이의 존중—문명의 충돌을 넘어서』. 서울: 말글빛냄. 2007.
- Tyler, R. W. 이해명 역. 『교육과정과 학습지도의 기본원리』. 서울: 교육과학사. 1994.

원고접수: 2010년 11월 20일 1차심사: 12월 3일 게재승인일: 12월 10일

연구자소개: 윤재근

- ① 전공: 종교교육, 한국신종교사상/소속: 대진대학교 종교문화학부
 -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한국종교, 한국신종교사상
 - ③ 주요논저: 종교와 인격교육, 대순사상의 인간형성이론, 대순사상과 생태적한경보존의 문제, 대순사상의 종교교육이론, 대순사상에 있어 인간의 욕망에 관한 해석, 한국 신종교의 도교문화와 생명관
 - ④ E-mail: jkyoun@daejin.ac.kr
-

Abstract

**A Pluralistic Approach to Religious Education
in a Mission Schools**

Youn, Jaekeun

Daejin University

Religious culture plays a very grave role in defining and shaping of a society and era. We already live in a plural religious society where no ideology or belief can solely lead a society. In future, diversity and individuality will be even more widely spread, thus leading to a world where no single religion will become ‘the only one standing’. Especially in a society like Korea, where religious diversity is so distinct, Religious education as a general education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Therefor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look into the problems of Religious education as a general education in Korea’s secondary school as well as the changing history of curriculum of Korea.

Moreover I would like to look into the fact that whether the Religious education really does have their intended value as general education. Also I will look into curriculum of DaeJin University’s Religious department in order to figure out about training of teachers in fields of DaeSoonjinrihoe.

By looking into these facts we can see that Religious education as general education should not be used as means of missionary work. Also since religious education as subject is legally carried out solely on the hands of school, it should remain only in curriculum of Korea’s secondary school.

Religious education should remain as a education for all, in order to shape the ‘right person’ which all religion suggests. Thus Korea’s Religious education should remain neutral and unbound to any religion. So a class of Religious education in a school with connection to a religion should focus not on that specific religion which the school is connected to, but on training students to understand and how to live together with other religions. Meaning that Religious education that allows ,people of different religious belief

to talk freely and coexist, is crucial to our society today. And this remains in the fact that whether Religious education can find its place in Korea's secondary education.

Key words: a mission school, religious education, subject education, general education, Daesoonjinrihoe